



만로랜드, 드루파2012 성공 개최 '전설은 계속된다'

만로랜드가 법정관리를 통해 구제된 후 3개월 만에 참가한 드루파2012를 성공적으로 개최, 방문객들의 커다란 만족을 이끌었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란다와 '나노, 디지털 기술' 협력 발표

만로랜드는 지난 2월에 새로운 투자자를 발표함으로써 고객사들의 기대를 불러일으킨 데 이어 드루파2012에서는 R700과 R900시리즈를 통한 여러 가지 새로운 발전을 제시함으로써 혁신적인 만로랜드의 명성을 이어갔다. 또한 드루파2012를 통해 전 제품 분야에 걸쳐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생산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시회 개막 전날에는 드루파2012 동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베니란다와 '나노 디지털 기술'에 대한 협력을 발표함으로써 향후에 발표될 신기술 제품군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높였다.

2012년 생산계획의 30% 계약 수주

만로랜드는 고품질인쇄나 패키지 인쇄분야에서 충성도 높은 많은 고정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강점이다. 이들은 이번 전시회에서 만로랜드의 뛰어난 품질과 빠른 속도에 대한 높은 신뢰성을 보이며, 만로랜드를 능가하는 기계를 찾기가 어렵다는 찬사를 보냈다. 만로랜드에 따르면 전시회 기간 동안 3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기간 동안 많은 계약이 확인됐거나 합의됐다. 이는 2012년도 생산계획의 약 30%에 해당하는 양에 이른다. 이에 만로랜드는 드루파 이전에 받았던 주문과 합할 경우 올해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짧은 채권단 관리 기간 동안에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마쳤으로써 올해 안에는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드루파팀 강한 공동체 정신 전달

만로랜드의 라파엘 페뉴엘라 이사는 "드루파2012년에서 성공적이었는데, 여기서 만로랜드는 기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인쇄업계에서 충실히 수행할 임무에 대해서도 보여줬다"면서 "이로써 만로랜드의 드루파 참가 모토인 '전설은 계속된다'라는 주제를 확실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주인 아래에서 지난 100일 동안 잘 적응하고 시스템을 정착시켰다"면서 "과거에 만로랜드를 관리했던 방식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회사는 신선하면서도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산업계의 대주주인 Mr. Langley의 지휘 아래에 다른 방법으로 구성될 것이며, 아마 중소기업 형태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5월 13일에 가진 직원 모임에서 페뉴엘라씨는 "만로랜드를 방문한 관람객들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만로랜드의 드루파팀에서 매우 강한 공동체 정신을 느꼈다"고 전하고 "이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

TEL: 02-777-5271 | FAX: 02-777-5272

홈페이지_ www.manroland.co.kr